

포스코홀딩스 장인화 회장 후보에 보내는 공개주주서한

2024년 3월 12일

수신

- 주식회사 포스코홀딩스 장인화 회장 후보

발신

- 사단법인 박웨이브 김 민 대표 외 2명

귀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응원합니다.

먼저, 어려운 대내외 경영환경 속 2050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경영진과 이사회, 일선 현장의 임직원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사단법인 박웨이브 김 민 대표 외 2명(이하 청년주주)은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포스코홀딩스 보통주식 6주를 보유한 포스코홀딩스(이하 '회사' 혹은 '귀사') 주주입니다.

귀사는 2020년 12월 아시아 철강사 최초로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2050 탄소중립 로드맵을 발표하였습니다. 작년 3월에는 포스코그룹은 창사 54년 만에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여 이차전지, 수소 등 친환경 미래소재 대표기업으로 발돋움하겠다는 야심 찬 선언을 하였습니다. 특히 작년 9월 냉전 범람으로 인한 제철소 침수 피해로부터 135일 만에 모든 복구를 마무리하여 영업이익 최소화를 이해 전사적 노력을 다했습니다. 이 외에도 13년 연속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철강사' 1위 기록, 저탄소·친환경 R&D를 위한 미래기술연구원 개원, 국제수소환원제철 포럼 개최 등 업계에서 최상위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낮은 탄소중립 경쟁력으로 인해 귀사의 기업가치가 위험에 처해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2050 탄소중립 로드맵 상에서 소극적인 감축노력과 불분명한 이행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것이 핵심 이유 중 하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작년 냉전 범람으로 인한 연결기준 영업이익 손실은 약 1조 3천억 원이며, 이와 같은 물리적 리스크는 앞으로도 포항제철소, 광양제철소 등 포스코그룹이 소유한 자산에 지속적인 피해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또한 2030년 감축목표를 달성하더라도 유럽 탄소국경조정제도로 인해 2026년부터 수천억 원대, 배출권거래제 강화로 인해 2030년에 수조 원에 달하는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예상됩니다. 포스코홀딩스가 당면한 기후 리스크로 인해 수익성 악화가 예견된 가운데,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대한 줄이려는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작년 3월 14일 정기주주총회에서 공개주주서한을 통해 기후 리스크 제고를 위한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귀사 정기석 대표이사 명의의 공식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1년 간의 이행과 개선노력은 기대했던 것보다 저조한 상황입니다. 2050 탄소중립 로드맵에서 제외된 해외 사업장의 탄소감축 계획은 여전히 미수립된 상황으로, '탄소 누출(Carbon leakage)'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여 그린워싱 비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또한, 2020년 이후 배출원단위 목표와 석탄 기반의 고로에서 수소환원제철로 설비를 전환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책임있는 의사결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외에도 포스코인터내셔널과 포스코이앤씨가 각각 29%, 5%의 지분을 투자하고 있는 삼척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은 재무적 위험 뿐 아니라 귀사의 2050 탄소중립 선언의 진실성을

퇴색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귀사의 장인화 회장 후보로부터 아래 6가지 제안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을 주주총회 개최 전에 밝혀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만일 청년주주가 제시한 기한까지 장인화 회장 후보 명의의 공식적인 답변이 없거나 확인되지 않을 경우, 향후 주주제안의 형태로 주주총회 표결통과를 위한 주주행동 캠페인까지 염두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개주주서한을 통해 파리협정 1.5도 목표에 부합하는 단기 로드맵 상의 개선방안을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요구하여, 귀사가 당면한 기후 리스크로부터 주주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주주로서 계속해서 행동할 것입니다.

1. 작년 공개주주서한 회신내용에서 약속한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3곳의 해외 사업장 탄소감축 계획을 올해 상반기 내 발표할 것을 제안합니다.
2. 2020년 이후 목표를 수립하지 않은 '배출원단위 목표', 석탄 기반의 고로에서 수소환원제철로 대체하는 '설비 전환 계획'이 담긴 구체적인 2050 탄소중립 이행방안을 연내 발표할 것을 제안합니다.
3. 유럽 탄소국경조정제도, 국내 배출권거래제 등 향후 단기적으로 발생할 수천억 ~수조 원의 탄소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국제에너지기구(IEA)에서 권고하는 25%까지 상향할 것을 제안합니다.
4. 글로벌 공급망과 투자자의 탈탄소 요구에 적극 대응하고 향후 증가할 전력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포스코그룹 주요 5개 계열사*의 RE100 가입을 연내 선언할 것을 제안합니다.
* 포스코홀딩스, 포스코,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퓨처엠, 포스코이앤씨
5. 국가 배출권거래제의 본래 취지를 존중하고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태풍 힌남노로 인해 발생한 2022년 온실가스 배출권 잉여분에 따른 판매수입 311억 원을 수소환원제철 R&D에 재투자할 것을 제안합니다.
6. 작년부터 시작한 탄소중립 NDR(기업설명회)을 해외 투자자뿐 아니라 국내 투자자 및 소액주주들을 대상으로 개최하고, 탄소중립 NDR 관련 IR 활동을 홈페이지를 통해 상세히 공개할 것을 제안합니다.

청년주주는 포스코홀딩스 이사회가 2050 탄소중립을 최우선 아젠다로 삼아, 친환경 미래소재 기업으로 재조명 받고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국가 경제에 이바지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귀사의 행보가 주주가치 제고뿐 아니라, 산업계 전반의 2050 탄소중립, 그리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단법인 빅웨이브

김민드림